

민주, 檢 이재명 소환통보에 “김 여사 주가조작 철저 수사” 촉구

“여론, 지지도 나빠지자 물타기”

“이중잣대 수사...특검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출석 통보에 대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인지 밝히라”며 맞불을 놓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노골적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러부러 물타기 정치수사 쇼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설 법상에 윤석열 정권 치부와 실정 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방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 내 옮아내는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여사 관련 수사 부진을 주장하면서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 입맛에 맞춰 수사권을 조자롱한 칼 쓰듯 남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수사를 계속 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안보·외교 참사, 경제 무능이 설 법상에 오르려 하자 야

당 대표 소환으로 이를 덮으려 하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집권 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이 대표 때려잡기에만 몰입한다”며 “검찰은 돈 흐름을 제대로 추적 않고 답을 정해 이 대표 죽이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대표는 대선 시절부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해 왔다”고 했으며 “검찰은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대검찰청 항의 방문에도 나섰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부진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올해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건 모양새다. 이와 관련한 당 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 관련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에 서도 이 대표 출석 관련 내용이 다뤄질 소지가 있다.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안건 대상은

아니나 주요 현안인 만큼 자유토론 시간을 활용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최이슬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 ‘한우산업 위기극복과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한우의 위기, 한국농업의 미래 문제로 확장하여 대안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지난 16일 ‘한우산업 위기극복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우가격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위기 극복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보당 박형대 의원의 제안에 의해 전국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 전남광주전남연맹이 함께 준비했다.

토론회에는 박형대·오미화 최정훈 도의원, 전국한우협회광주전남도지회 김재영회장, 전남광주전남연맹 권영식 부의장, 한우자조금관리위

원회 민경천 위원장, 전남진보연대 문경식 상임대표, 한우정책연구소 황명철 부소장,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박도환 과장을 비롯하여 많은 한우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였다.

박형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농촌의 근간이고 주춧돌이이라며, 한우가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전남이 무너지며 청년 농민이 사라지게 된다는 생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재영 지회장은 한우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해준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정

부의 정책전환과 축산농가의 자구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경식 전전농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한우정책연구소 황명철 부소장이 ‘2023년 한우산업 위협요인과 농가경영안정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황명철 부소장은 한우산업 3대 위협요인으로 O소·송아지 가격하락 O생산비 상승 O탄소중립 가속화로 꼽으면서,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비확대·시장격리 등을 통해 당면한 소값 폭락에 대응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사료가격안정제 등 장기적 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박도환 과장은 한우농가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면서,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발제 후에도 참여한 축산농가들의 질문과 다양한 의견이 활발하게 토론회되어 한우 문제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형대 의원은 많은 농가의 의견을 모아 의회는 열심히 반영하고, 전남도가 열심히 집행해 나간다면 전라남도가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강력한 지역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한우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민주, 尹 정부 겨냥 “고물가에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거론...서민고통 가중”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비 인상, 외교·노동 정책 등 윤석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을 거론하며 “지금이 그(올릴) 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고물가에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는 건 잘못된 행정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어난 대출 이자 감당만도 벅찬데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지난해 4분기 급등에 이어 올해도 큰 폭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의 발인 지하철, 버스 요금도 크게 오를 예정”이라며 “에너지, 수도에 이어 대중교통까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면 서민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한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5%대를 유지하면서 고공행진 중인 바로 지금이 그 때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안 오를 게 없지만 적자 타령만 하느라 국민 실질소득이 바닥나는 건 안중에도 없다”며 “법인세 인하 노력의 10분의 1만 해도 국민 고통을 방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발언을 두고 “말 한마디에 협력국 이란이 줄지에 적국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한 나라인데, 국제 외교를 적군과 아군으로 접근하는 이분법적 외교 인식은 국가 안전을 위협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또 “최근 북한에 대한 강대 강 대처,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도 이분법적 외교관에서 온 집단적 결과”라며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 핵심이 됐다”고 우려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장은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은행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서민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은행권 상상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정 원내 부대표는 정부 교육 개혁 기조를 짚으면서 “교육 시장화, 황폐화 원년이 될까 우려된다”, “교육 시장화는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교육을 시장, 시장 원리에 내맡기면 될 것인간 착각”이라며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반자유적 정책을 행하면서 책임까지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